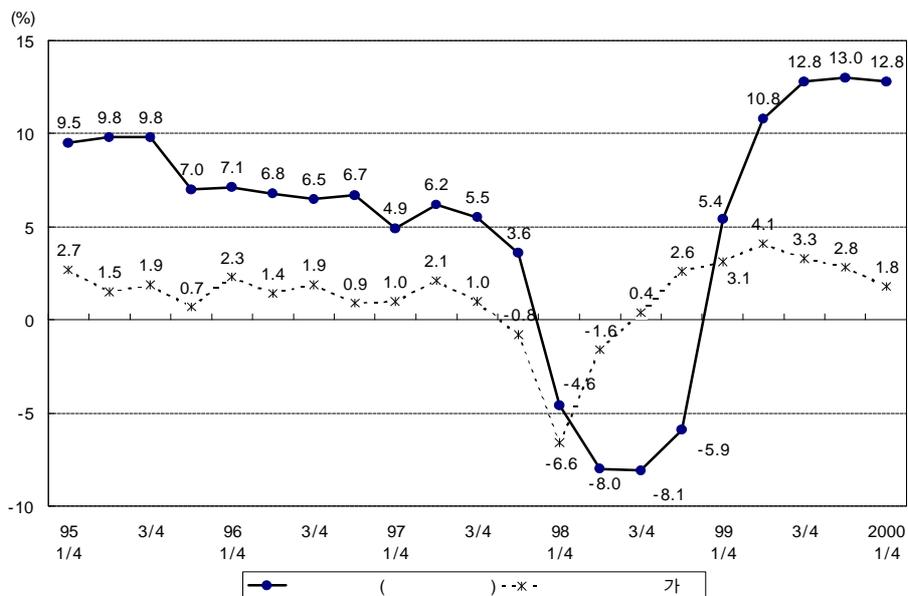


거시 경제 동향

경제 성장

- 1/4분기 중 우리 경제는 중화학 공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분기 대비 12.8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(제조업) 산업용 기계, 전기전자, 운수장비 등 중화학공업의 높은 성장세와 경공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23.0%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
 - (건설업) 반면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7.8%의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98년 1분기 이후 연속 9분기째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
 - (서비스업) 통신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도소매업 등 여타 서비스업도 호조를 보여 서비스업 전체로 11.7% 성장하였음
- 1/4분기의 12.8% 성장으로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두자리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이는 소비, 설비투자, 수출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
 - 가계의 내구재 소비 증가와 기업의 기계류 및 운수장비 투자,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높은 수출 증가세 등이 성장을 이끌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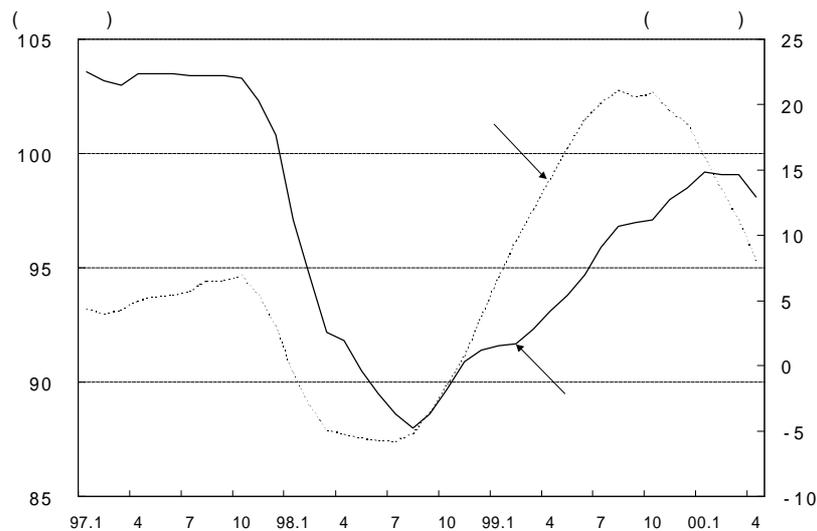
< 경제성장률 추이 >



산업 활동

- 4월중에도 생산, 소비,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, 증가폭은 상당히 둔화되었음
 - (생산) 자동차 파업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였고, 사무회계용 기계 등의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3월(17.6%)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16.9%를 기록함
 - (소비) 소매업의 판매 호조가 지속된 반면, 자동차 및 도매업의 매출 증가 둔화로 3월(12.8%)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둔화된 11.4%를 기록
 - (투자) 설비투자는 40.7%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, 국내건설수주는 -4.4%를 기록하여 향후 건설투자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
-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에 이어 보합세를 보여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자동차 파업요인 등이 반영돼 전월대비 1.0p 하락한 98.1을 나타냈으며,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도 전월대비 2.9%p 감소, 작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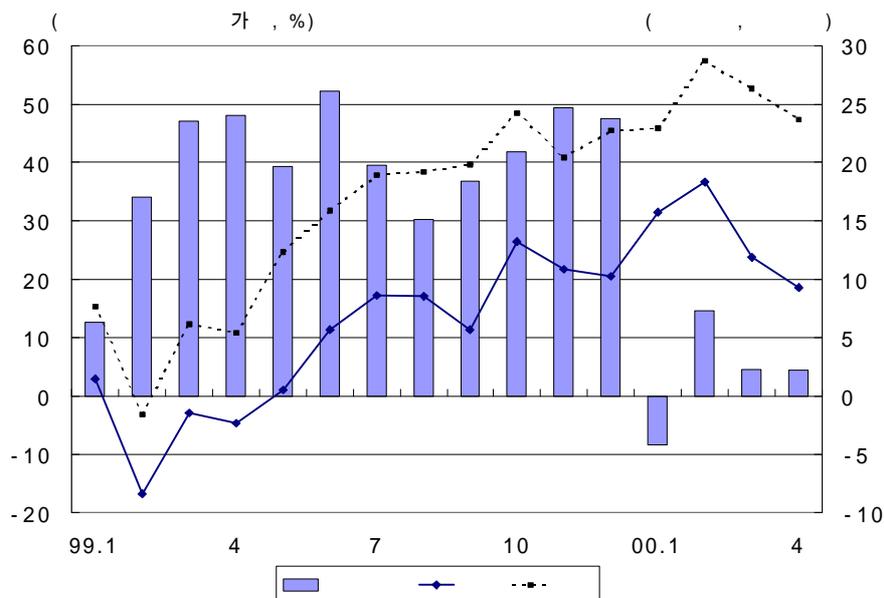
< 경기종합지수 추이 >



대외 거래

- 4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.6% 늘어난 136.4억 달러를 기록하여, 3월 이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
 -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미국,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신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노사 분규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수출 차질, 그리고 선거로 인한 조업 손실 등에 기인함
-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7.4% 증가한 134.2억 달러에 달해, 4월 중 하루 평균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인 6.24억 달러를 기록함
 - 고유가 지속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이 각각 58.0%와 61.3%를 기록하여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
- 수입 급증에 따라 4월 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됨
 - 4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2.3억 달러로 전년 동월의 24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해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인 120억 달러 달성이 불투명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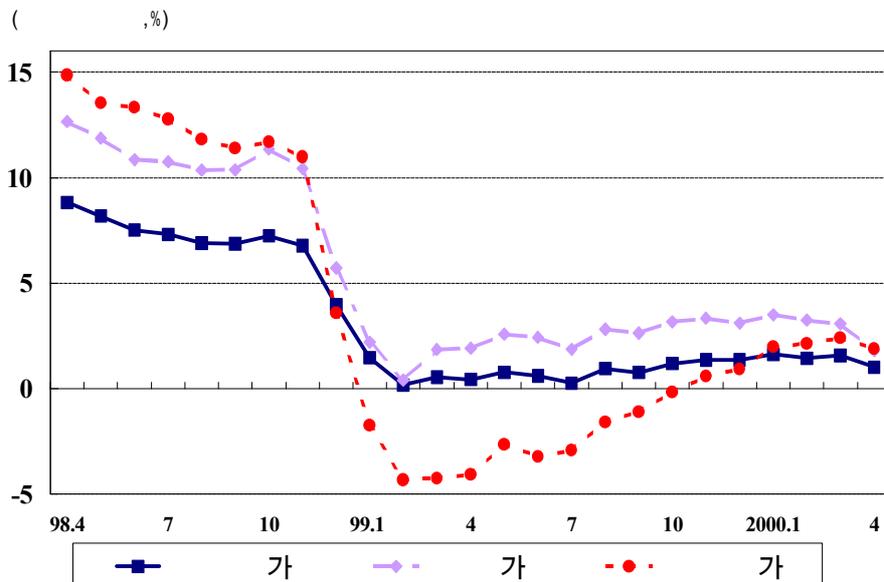
<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>



물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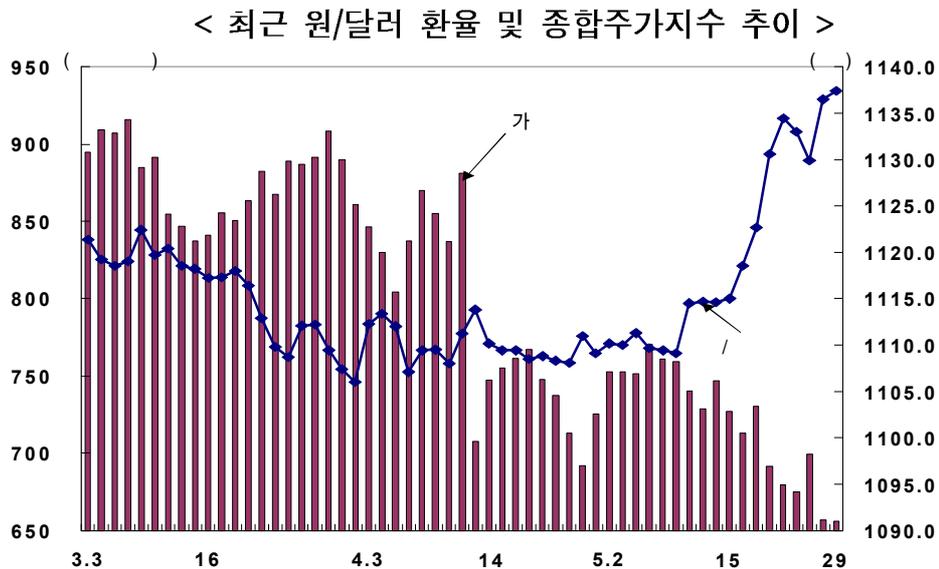
- 4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세 지속에 힘입어 전월 대비 0.3%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0% 상승하는데 그침
 - 의료 수가가 인상된 공공서비스 요금(1.0%, 전월 대비)과 개인서비스 요금(0.2%)은 상승하였으나, 채소류 출하 증가 및 축산물 소비 부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(-2.4%)이 큰 폭으로 내리고 석유류 가격(-0.7%)도 내림세를 나타냄
 - 한편 생활물가지수는 파, 감자, 한우소고기, 등유, 휘발유 가격 등이 내려 전월대비 0.7%(전년 동월 대비 1.8%상승) 하락함
-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소폭 상승(전년 동월 대비)하는데 그쳐 작년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한편,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, 경기 회복세로 인한 임금 등 생산 요소 비용 상승 압력 증대, 그리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시사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< 최근 물가 추이 >



금융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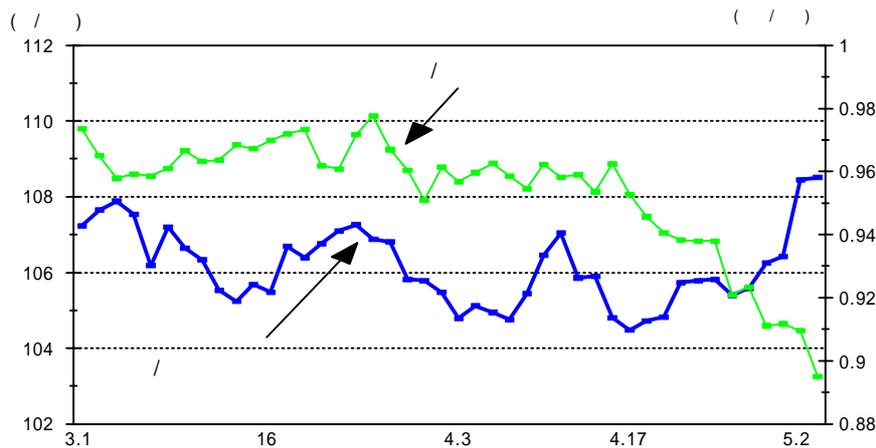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5월초까지 1,110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원/달러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최근 1,130원 이상까지 급등함
 - 금융 불안감의 확대는 달러화 보유 심리를 증가시키고, 국내 주식시장 침체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도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임
 - 또 경상수지가 9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되는 등 외환시장에서 일시적인 달러 수요 우위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
- (금리)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불신과 물가 불안 우려 등으로 한때 10%포인트대로 상승했지만,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로 다시 한 자리 수로 하락
 - 그러나 장기 채권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시장 시장으로만 몰리는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은 심화됨
- (주가) 투신사 구조조정, 금융시장 불안감,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한때 연중 최저치인 650포인트대까지 하락함
 - 또 올해 3월까지 8조 원치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였던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4월 이후부터 주춤해지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 침체의 한 원인임



국제 경제

- 미국 경제는 2000년 1/4분기에도 5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91년 이후 9년째 호황을 보이고 있음
 - 성장을 주도한 것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소비 지출로서 1/4분기 중 8.3%의 증가율을 보였음(소비지출의 미국 국내총생산 기여율: 68%)
 - 1/4분기의 5.4% 성장률은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성장률(3.5~4.0%)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연준(FRB)은 5월 16일 금리를 0.5%p 인상한 바 있음
- 일본 경제는 실업률이 전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
 - 실업률이 지난 3월 전후 최고치인 4.9%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모리 신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천명함
- 엔/달러 환율은 일본의 더딘 경기 회복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, 그리고 유로화 폭락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
 - 유로화 환율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로 인한 금리 격차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아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유로당 0.9달러 선이 붕괴됨

< 엔/달러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 >



(거시경제실)